

“노인복지정책 개선 시급”

‘사랑의 전화’ 모의국회 열려

1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5-66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전화’(회장 심철호·50) 지하 2층 강당에서는 이 단체 회원 등 60~70대 노인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인 모의국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핵가족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할 말’과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진 이날 행사는 11명의 노인들이 나서 발언할 때마다 참석한 노인들이 ‘웁소’ ‘맞습니

30만~40만원의 생활비를 내야 한다는 유료양로원은 우리 저소득 노인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노인복지는 돈 많은 노인보다 중산층 이하에 속하는 노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서대문구 홍은2동에서 온 이영우(70)씨는 유료양로원 문제를 놓고 열을 올렸다.

“자녀가 있는데도 함께 살지 못하는 노인이 25%를 넘고, 이

촉진특별법을 만들어 노인 직종을 개발하고 관청이나 기업체에 일정 비율씩 노인 채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애초 2시간으로 예정됐던 이날 행사는 미리 준비한 11명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도 노인들이 앞다퉈 발언을 신청하는 바람에 좀처럼 끝날 줄을 몰랐다.

노인들은 또 “무료양로원은 줄을 서도 들어갈 수 없다” “정부에서 세운 무료노인전문병원 이 한 곳도 없다” “결식노인 대상의 급식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등 자신들의 처지를 대변하

쓸모없는 노인정만 짓는 정책 한심 수당인상·세제혜택 제공 미흡 지적

다’ 소리와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등 열기속에 진행됐다.

“정부가 지어주는 노인정은 공간이 좁고 비위생적이어서 노인들로부터 기피당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도서실도 있어야 하고 휴게실이나 레크리에이션 등을 위한 강당도 필요한 데, 이런 욕구를 외면하고 쓸모없는 노인정만 계속 짓는 공무원들은 머리가 안돌아가는 사람들이예요.”

마포구 신공덕동에서 온 박병윤(79)씨의 말이 끝나자 노인들은 손뼉을 치며 후련해 했다.

“보충금 1천만~3천만원에 월

린 노인의 절반 이상은 전세 또는 사글셋방을 떠돌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선 수십만채의 주택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노인용 주택을 짓는다는 말은 없어요. 돈 없는 노인을 위해 값싸게 들어갈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참가한 노인 중 ‘젊은 축’에 끼는 김태홍(62·여)씨가 발언에 나섰다.

“60~70대 초의 노인들 중에도 젊은이 못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미국처럼 정년제도를 폐지하든지 일본처럼 고령자 취업

는 말이 나올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 박재간(68)씨는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족에 의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노인 자신의 요구는 외면한 채 자녀에게 노인부양수당이나 세제혜택을 쥐 가족이나 노인 스스로 해결하라고 국가의 책임을 떠넘기는 6공의 노인복지정책은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식 기자〉